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지난 9월 17일, 미국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점령하라’ 시위는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어 10월 15일에는 82개국 1500여 도시에서 동시에 디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투쟁대상은 금융자본의 탐욕과 부패다.

금융자본의 탐욕이 극에 달한 것이 2008년의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위험한 과생상품을 다투어 개발하는 등 월가의 과도한 경쟁과 탐욕, 그리고 부패가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되는 듯하다가 다시 폭발한 것이 이번 ‘점령하라’ 시위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의 20%를 가져간다고 한다. 이상위 1%에 의해 운용되는 금융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이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금융상품 가격을 조(秒) 단위로 조종할 수 있다.

목적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점령하라’ 시위대의 외침은 이 금융기업들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다. 유럽 시위대는 “99%는 위기, 1%는 강도”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1% 부자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해서 99%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 시위대의 생각이다.

2007년 미국 농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3600만 명의 미국인이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라고 한다. 이렇게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가 이번 시위를 촉발한 것이다.

‘점령하라’ 시위대 중에는 “반자본주의

으로 인한 이 세계의 불평등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세계적 부자인 웨лен 버핏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멜린다 재단’에 기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회원 49명이 3년간 기부한 금액이 87억 5500만 원이나 된다. 조선일보 미디어아운은 이를 대해 “보자기 만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49명의 초상은 우리 앞에 열린 자본주의 4.0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라 보도했다.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이들의 행동은 지고지선(至高至善)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과연 신자유주의로 명든 자본주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들의 기부행위가 자본주의의 속성인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대로 왜 서율역 앞 지하도의 노숙자들은 없어지지 않고, 결식아동의 수는 늘어만 가는가? 진화한다는 자본주의의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자본주의는 영원한 불멸의 체제인가?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공여한다고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월가의 금융기업들은 1998년에서 2008년까지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월가의 공식 로비자금이 33억 달러(약 3조7600억 원)에 이르고, 2007년에 월가가 고용한 로비스트만 2996명이나 됐다.

이러한 로비활동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와 혁명이 필요하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렇다. 지금은 분명 자본주의의 위기 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보완하려는 여러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4.0’이 그것이다. 이론가들은 애써 이를 “파릇한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차가운 자본주의’인 셈이 된다. 아니,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이 차가운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질병과 가난

은 공포에 떨었고 이것이 한번으로 끝날지 더 큰 지진의 전조인지 몰라 두려워했다. 다음날, 진앙지가 카트만두에서 약 300Km 떨어진 인도의 시킴 주로씨 진도 6.8의 강진이었다는 것, 그리고 시킴에서는 100여 명, 네팔에서는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곧 바로 지진 대비 비상 꾸러미를 꾸렸다. 여권사본, 생수, 간단한 옷가지, 플레이시, 비상약, 화장지와 비닐봉지, 비스킷과 초콜릿,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헝겊 비상식량 컵라면 등으로 보따리를 마무리했다.

다섯 살배기 네발 아이 바는 신이 나서 다음 지진이 또 언제 오는지 아빠에게 물은 한다지만, 어른들은 보잘것없는 비상 꾸러미를 쟁겨놓고 할 일을 다 한 듯, 지진 기억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채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박영석 대장은 정부의 실종 소식은 날이 갈수록 네팔 교민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더해가면서 눈 산을 바라보는 시선에 절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산악 영웅들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 할 것이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트너스 책임교수〉

안나푸르나에 잠든 위대한 산사나이들이여!

듣는 네팔 교민들의 안타까움은 너무도 컸다. 일부 교민들은 그를 직접 만났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우리 세대는 초등학교 때 히말라야 산맥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을 배우면서 네팔을 알게 되었다. 나는 때때로 그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인지 에베레스트인지 헷갈렸다. 영어를 배우면서 에버(ever)와 레스트(rest)의 합성어로써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즉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 오르기 ‘영원히 쉴 수 있는 산’이라고 줄이하고 내심 흡족해했던 것이 기억난다. 실지로는 조지 에베레스트의 측량 업적을 기려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것. 공식 높이가 8848m라는 것 등을 알게 된 것은 네팔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의 일이다.

에베레스트산 이름이 네팔어로는 ‘사가르마타’인데 이는 ‘바다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한다. 히말라야 산지에서 소금을 캐고 암

모나이트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곳이 한 때는 바다 밑이었으나 언젠가 엄청난 지각변동으로 융기되였음을 말해주는데 네팔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하다.

이런 지각변동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 속에 남았고 특히 이웃나라 인도에서 발생하는 찾은 지진 때문인지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 민감하고 지진 관련 교육도 시킨다. 내가 지난 9월 초 네팔에 도착 후 지진 대피 설명을 들었고 비상 꾸러미를 만들어 쉽게 손닿는 곳에 두라는 당부를 들었다.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9월 18일, 그 일요일 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늦은 저녁식사 중에 식탁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잠시 누군가 밥상에서 다리를 너무 심하게 뻐냈다고 생각했다. 위 층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밖으로 대피하라는 고함소리가 들렸을 때야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이것이 바로 지진이구나!” 집 밖 공터에 모인 사람들은

‘불임정당’의 화살은 한나라당이 더 아프게 맞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한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 더구나 잡권당으로서 그 책임은 더 막중하다. 지지하지 않는 지역과 계층도 끓여야 하는 게 정의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민심을 되찾고자 다양한 쇄신안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소통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와 대선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차원으로만 접근한다면 더 큰 위기へ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건 ‘발등의 불’을 끄는 능력이 아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공감 노력, 진정성 있는 소통과 포용력, 새로운 비전 제시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력이다.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민심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몇 개월 뒤 또다시 위기와 변화, 자성과 죄신을 외치려면 차라리 지금 당 간판을 내리는 게 낫다. 이는 비단 한나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광주·전남지역 발전특별위원장〉

구했다. 대신 국민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생활정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통과 통합의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도 일깨워주었다. 정당정치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깊은 성찰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각 정당은 생존을 위해 자성·변화·혁신·쇄신 등 온갖 용어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는 모두 번 나온 게 아니다. 특히 한나라당에는 최근 단골 메뉴가 돼버린 느낌이다. 필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4·7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비상대책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때도 지금 상황과 흡사했다. 그럼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성다면 반성을 하지 않았고, 리더십 교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체질 개선’에 실

장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급증에 대해 우려와 함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양보와 노인분들의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의 재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경찰에서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对策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홍보교육을 하는 등 혼신을 다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 사회,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인 분들이 평온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

▲이창조·광주 북구 문홍동

교통약자 노인 배려하는 운전습관 갖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그분들의 역할 또한 매우 소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일상 생활에 비하여 지적 인지능력이 다소 불편한 것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교통 약자로서의 배려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국적인 사망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총 교통사고와 유형별로 보면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세월이 가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으면서 구성원역할을 해 나가야하는 과

다. 노인들의 보행속도는 젊은 사람에 비해 50% 이상 느리다고 한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발견 시 반드시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 후 출발해야 한다. 또한 노인분들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하고 항상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겠다.

모두가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각별한 관심이 집약된다면 분명 사고는 줄어들 것이고 노인분들도 우리 사회에 같은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창조·광주 북구 문홍동

시설

F1 개최권료 재협상 반드시 끌어내야

F1(포뮬러원) 대회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개최권료 재협상이 암초에 부딪혔다. 전남도와 F1 조직위가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베니에스터스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이를 거부했다.

외신은 베니 회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한국의 개최권료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